

한국어 모어 화자의 상대높임법 인식 양상*

— 20, 30대 화자를 중심으로 —

박지순**

|| 차례 ||

- I. 서론
- II. 상대높임법 체계
- III. 한국어 화자의 인식
- IV.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학교문법의 상대높임법 체계와, 한국어 화자들의 상대높임법 사용 양상, 한국어 화자의 상대높임법 인식을 DCT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상대높임법 등분의 경우 체계, 양상, 인식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으)시-’에 의해 상대높임법 등분이 세분화되는 현상은 학교문법에서는 모순을 보였고, 한국어 화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는 체계상으로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고, 한국어 화자들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사용 양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해체’와 ‘해라체’의 경우는 체계상으로는 ‘해체’가 더 높은 화계이지만, 사용 양상과 인식 조사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해요체’와 ‘해라체’의 격식성에 대해서는 한국어 화자의 인식과 사용 양상은 일치했으나, 체계와는 불일치하였다.

주제어 : 상대높임법 체계, 상대높임법 인식, 한국어 화자의 인식, 언어사용 양상

* 이 논문은 (사)한국언어학회 창립60주년 기념 여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집고 다듬은 것이다.

**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I. 서론

상대높임법은 화청자의 사회적 관계, 발화 상황 등에 따른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사회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발화 때마다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언어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대높임법은 모국어 화자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습득되지 않고 학습을 통해서만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에(구분관 2008:754), 국어 교육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다. 즉, 상대높임법은 사회문화적인 지식의 일종으로서 후천적으로 학습되며, 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의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문법에서 상대높임법 체계를 어떻게 제시하며, 각 화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학교 문법에서 제시하는 상대높임법 체계와 언어생활과 괴리되는 측면이 커지고 있다. 앞선 연구에서도 이 같은 측면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었으며(윤천택 2004, 이창덕 2013, 임지룡 2015¹⁾, 임지룡 2015²⁾), 한국어 모어 화자의 상대높임법 사용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유송영 1994, 김병건 2012). 특히 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에서는 실제 한국어로 적절히 의사소통하기 위한 목적에서 문법을 활용하므로 상대높임법 체계가 언어사용 양상을 잘 반영하지 못할 경우 언어 학습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문법의 상대높임법 체계가 한국어 화자들의 한국어 사용 양상과 괴리를 보이는 현 시점에 한국어 화자의 상대높임법 체계에 대한 인식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상대높임법 체계에 대한 인식을 상대높임법 체계의 등분 개수, 주체높임 어미 ‘-(으)시-’에 대한 인식, 화계 간 높임의 정도 차이, 화계의 격식성에 대한 인식, 화계의

사용 맥락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설문을 통해 살펴보고, 앞선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지만 격식/비격식의 맥락에 따른 상대높임법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담화완성테스트(DCT)를 이용한다. 설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높임법 체계, 한국어 화자의 인식, 한국어 화자의 언어 사용 간에 어떠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가 향후 상대높임법 체계와 한국어 화자의 언어 사용, 그리고 인식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상대높임법 체계

상대높임법 체계를 보는 관점은 크게 일원 체계로 보는 관점과 이원 체계로 보는 관점으로 나누어지며, 각 체계에 따른 등분은 3등분에서 9등분까지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학교 문법에서는 상대높임법 체계를 이원 체계로 보고 격식성을 기준으로 격식체를 4등분, 비격식체를 2등분하는 관점을 수용하고 있으며(<표 1> 참조), 교과서에는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 남기심·고영근(1985/2011)의 체계

격식	비격식	※하라체
아주높임(합쇼)	두루높임(해요)	
예사높임(하오)		
예사낮춤(하계)	두루낮춤(해)	
아주낮춤(해라)		

〈표 2〉 「중학교 국어 5」의 상대높임법 체계(전경원 외, 2014)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격식체	하십시오체	가합니다	가십니까?	가십시오	(가시지요)	-
	하오체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구려	갑시다	가는구려
	하게체	가네, 감세	가는가?, 가나?	가게	가세	가는구먼
	해라체	간다	가나?,가니?	가(거)라, 가렴, 가려무나	가자	가는구나
비격식체	해요체	가요	가요?	가(세/서)요	가(세/서)요	가(세/서)요
	해체(반말)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학교 문법에 따르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 객체, 듣는 이 중 누구를 높이느냐에 따라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구분되며, 주체 높임은 용언의 어간에 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를 붙여서, 객체 높임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해서, 상대 높임은 특정한 종결어미를 씌으로써 표현하는 것으로 구분돼 왔다. 그런데 이 같은 구분은 실제 상대높임법 사용 양상의 다원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1과 같이 상대높임법이 종결어미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고 하는 교과서의 설명은 <표 2>의 상대높임법 체계와 모순된다. <표 2>에서는 ‘하십시오체’의 청유법에 ‘-으시지요’를, ‘하십시오체’의 평서법, 의문법으로 ‘-으십니다’, ‘-으십니까’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체’ 종결어미 ‘-지’에 선어말어미 ‘-(으)시’와 보조사 ‘요’가 결합한 ‘-으시지요’는 종결어미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으십니다, -으십니까’에서서도 종결어미만이 아니라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가 상대높임법에 관여하고 있다.¹⁾ 상관적 장면의 특성상 문장의 주체와 청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1) 이와 관련해 임지룡(2015ㄱ, 2015ㄴ)에서는 상대높임법을 세분화하는 ‘-(으)시-’를

주체 높임의 ‘-(으)시-’가 상대높임법에 관여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이며, ‘-(으)시-’ 결합 ‘해요체’, ‘하십시오체’ 표현은 ‘-(으)시-’ 미결합 표현과 비교했을 때 높임의 정도가 결코 같지 않다.

- ㄱ. 상대높임법 : 화자가 말을 듣는 상대방과의 신분 관계나 친밀감에 따라 적절하게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상대 높임은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인지의 여부,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보다윗사람인지의 여부에 따라 상대방을 높이는 종결 어미를 달리하여 표시합니다 <중학교 국어 5>(이삼형 외, 2014).

또한, 실제 언어 현실에서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화계들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담화완성테스트, 준구어 말뭉치 분석, 구어 말뭉치 분석 등을 통해 언어 사용 양상을 조사한 연구들에 따르면 전형적인 격식적 장면에서 비격식체인 ‘해요체’가 사용되고(유송영 1994:308), ‘해라체’는 주로 비격식적인 장면에서 사용되며(박지순 2015¹⁾:155), ‘해체’와 ‘해라체’가 높임의 등급에서나 격식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매우 유사한 실현 맥락을 보인다(김병건 2012:52).

높임의 정도에 있어서도 체계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현대 국어에서 ‘해체’가 ‘해라체’보다, ‘하십시오체’가 ‘해요체’보다 높임의 정도가 높은 화계인가 하는 것과, ‘하오체’가 높임의 화계인가 하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하십시오체’와 ‘해요체’ 간에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논의가 있어 왔고(손호민, 1983; 이창덕 2013:289),²⁾³⁾ ‘하오체’가 더 이상 높임의

적극적으로 수용해 ‘-(으)시-’의 유무에 따라 상대높임법 체계를 유표체계와 무표체계로 나누어 체계화하기도 하였다.

2) 손호민(1983)에서는 동일한 화자가 동일 담화에서 동일 청자에게 ‘하십시오체’와 ‘해

화계가 아니라 ‘하계체’와 마찬가지로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쓰인다는 사실 역시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었다(임홍빈 외 1995; 이익섭·채완 1999:358).

마찬가지로 ‘해체’와 ‘해라체’ 역시 그 실현 맥락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이 역시 선행 연구들이 지적해 온 바 있다(손호민, 1983; 이익섭·임홍빈, 1983; 이익섭·채완 1999: 352-354). 이러한 문제는 상대높임법 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언어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Ⅲ. 한국어 화자의 인식

1. 연구 방법

설문지는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학력 등 신상에 관한 문항을 제외하고 상대높임법 사용 양상과 상대높임법 인식을 조사하는 두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아래 <표 3>에서 보듯이 사용 양상을 조사하기 위한 세부 문항은 담화완성테스트(DCT: Discourse Completion Test)의 형식을 사용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상대높임법 등분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크게 전체 상대높임법 등분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묻는 문항(1번), 격식/비격식의 상황에서 쓰이는

요체’의 두 화계를 교체해 쓰는 예로부터 두 화계가 힘에서는 같고 유대의 측면, 특히 격식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즉, ‘하십시오체’와 ‘해요체’의 교체는 문체적인 이유로 일어나는데, ‘하십시오체’의 과도한 격식성이나 ‘해요체’의 불충분한 격식성에서 생기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본 것이다.

- 3) 박지순(2015:134)에서는 준구어 말뭉치를 분석해 ‘해요체’가 상당히 폭넓게 사용되는 가운데 ‘해요체’의 영역의 일부를 ‘하십시오체’가 담당한다고 하였으며 격식성이 두 화계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라고 하였다.

화계를 고르는 문항(2~3번), 발화의 격식성을 판단하는 문항(4번), 고빈도 종결어미로 대표되는 화계 간 높임의 정도를 변별하는 문항(5번), 화계를 대표하는 고빈도 종결어미가 사용된 문장 간 높임의 정도를 변별하는 문항(6번), 고빈도 종결어미가 대표하는 각 화계가 주로 사용되는 상황을 서술하도록 하는 문항(7번)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화계별 고빈도 종결어미는 박지순(2015:168-171)의 준구어 말뭉치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종결어미를 포함한 문장 역시 같은 말뭉치에서 발췌하였다.

〈표 3〉 설문 문항 구성

영역	문항	
사용 양상	1	취업 면접 대화에서 면접관의 발화 구성하기 (진술, 의문, 요청)
	2	사적인 대화에서 청자가 상위자/하위자/동등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화 구성하기(진술, 의문, 요청)
인식	1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대높임법 등분의 개수
	2	격식적 상황에서 쓰이는 화계 선택
	3	비격식적 상황에서 쓰이는 화계 선택
	4	화계별 구체 문장의 격식성 판단 (각 화계별 고빈도 종결어미를 포함한 문장 43개)
	5	화계 간 높임의 정도 변별
	6	화계별 구체 문장 간 높임의 정도 변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7	화계별 고빈도 종결어미의 사용 상황 기술

설문 조사는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2,30대 화자를 중심으로 하였고,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구체적인 구성은 아래와 같다.⁴⁾

4) 설문 내용의 특성상 응답자의 교육 수준과 연령대를 2,30대 대학생 또는 대졸자로 한정하였다. 이는 이들을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대 국어의 변화 양상을 확연히 드러낼

〈표 4〉 응답자 구성

신상 요인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성	18	36
	여성	32	64
연령	20대	43	86
	30대	7	14
학력	대학재학중	42	84
	대졸	8	16

2. 분석 결과

1) 상대높임법 사용 양상

상대높임법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담화완성테스트 결과는 아래 <표 5>에서 보인 바와 같다.⁵⁾ 취업 면접이라는 격식적인 대화 상황에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회사를 소개하는 진술 화행 시 가장 많은 77.1%의 응답자가 ‘하십시오체’를 사용해 응답했으나, 관련 업무 경력 유무를 묻는 질문 화행에서는 ‘해요체’를 사용한 발화가 53.1%로 34.7%인 ‘하십시오체’ 응답보다 많았다. ‘해요체’의 응답 비율이 ‘하십시오체’보다 높은 현상은 발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해줄 것을 요청하는 요청 화행에서도

수 있는 젊은 연령대의 화자이면서, 스스로의 언어생활을 반추하여 상대높임법에 대한 메타적 인식이 가능할 만큼의 교육 수준을 갖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5) 격식 대화에서 나타난 하계, 하오, 하라체 응답은 아래와 같은 것들로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면대면 상황에서의 발화가 아닌 서면 상황으로 이해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응답을 제외하면 DCT 결과에서는 ‘하십시오체’, ‘해요체’, ‘해체’, ‘해라체’ 4개의 화계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떠한 스펙들과 경력이 있는가?”

“현재 지원자가 지원한 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선호하는데, 이전의 회사에서는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구술해주시요.”

“우리 회사는 45년간 세계 3대 발효전문기업이고 매출액이 1조원에 달하는 건강한 식문화로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이다.”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동일한 격식적 대화 상황에서 격식체인 ‘하십시오체’와 더불어 비격식체 ‘해요체’의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의문, 요청 화행에서는 ‘하십시오체’보다 ‘해요체’의 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언어생활에서 ‘해요체’를 격식 상황에서도 활발히 사용하고 있으며, 의문이나 요청 화행과 같이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화행에서는 오히려 ‘하십시오체’보다 ‘해요체’가 더 선호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비격식적인 사적 대화에서는 상위자에게 발화할 시 진술, 의문, 요청 화행 모두 ‘해요체’의 사용이 8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동등한 관계 또는 하위자에게 발화할 시에는 ‘해체’의 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해라체’의 사용도 30%에 이르렀다. 현대 국어에서 일상적인 높임의 화계로 ‘해요체’가, 안 높임의 화계로 ‘해체’가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만, 상대높임법 체계상으로는 ‘해라체’가 ‘해체’보다 높임의 정도가 더 낮은 화계임에도 의문, 요청 화행에서는 하위자에게 발화할 때 ‘해라체’를 사용한 비중이 동등한 관계에서보다 더 낮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국어 화자들이 ‘해체’와 ‘해라체’의 차이를 높임의 정도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5〉 담화완성문항의 화계 사용 양상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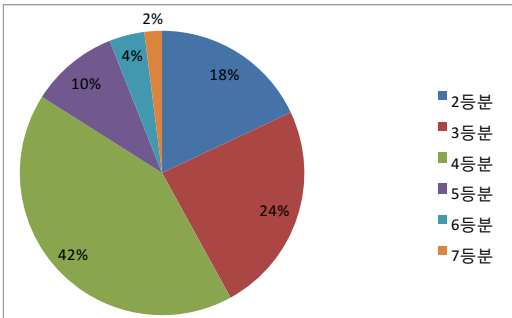
	발화 내용	화청자 관계	진술		의문		요청	
1	격식 대화	상위자- 하위자	하십시오	77.1	하십시오	34.7	하십시오	34.7
			해요	6.3	해요	53.1	해요	59.2
			하게	2.1	하오	4.1	하오	2
			하라	14.6	하게	8.2	하게	4.1
2	비격식 대화	하위자- 상위자	하십시오	13.7	하십시오	16	하십시오	15.7
			해요	84.3	해요	84	해요	82.4
			해	2			없음	2

		동등자	해요	7.5	해요	5.9	해요	6
			해	60.4	해	49	해	54
			해라	30.2	해라	35.3	해라	36
			무응답	1.9	무응답	9.8	무응답	4
		상위자-하위자	해요	4.1	해요	2	해요	6
			해	61.2	해	70	해	62
			해라	32.7	해라	24	해라	30
			무응답	2	무응답	4	무응답	2

2) 인식

(1) 상대높임법 등분 인식

상대높임법의 등분을 몇 개로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2등분에서부터 7등분까지 다양했으며, 그 중 4등분이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3등분이 24%, 2등분이 18%, 5등분이 10%, 6등분이 4%, 7등분이 2%를 차지했다. 학교 문법에서는 상대높임법의 화계를 격식체 4등분, 비격식체 2등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한국어 화자들은 격식·비격식체의 이원 체계로서가 아니라 각각의 화계를 개별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평면적 인식을 보였다.



〈그림 1〉 상대높임법 등분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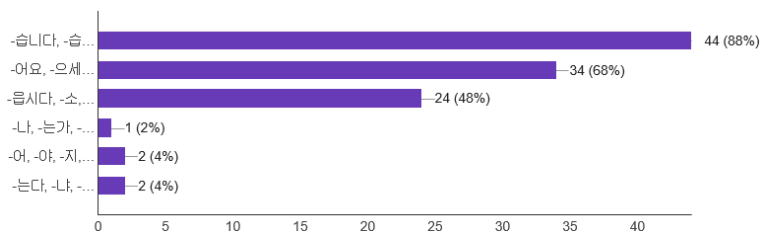
가장 많은 응답자가 상대높임법 등분을 4등분으로 인식하였는데, 격식을 갖추어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의 화계, 자신보다윗 사람에게 사용하는 일반적인 높임의 화계,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평대, 아주 편한 사이나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화계의 네 가지를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등분의 인식을 보인 경우는 격식을 갖춘 화계, 높임, 평대의 세 가지 화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등분이라는 응답은 단순히 높임과 안 높임의 두 가지 화계로 구분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2) 격식적 상황에서 쓰이는 화계 변별

화계의 격식성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각 화계를 대표하는 고빈도 사용 종결어미를 제시하여 격식성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격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 화계로 응답자의 88%가 ‘하십시오체’를, 그 뒤를 이어 68%가 ‘해요체’를 들었으며, 48%는 ‘하오체’라 응답하였다. 즉, 학교 문법에서 격식체의 화계로 구분한 ‘하십시오체’는 한국어 사용자들도 격식적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화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요체’의 경우에는 학교 문법에서 비격식체로 구분하고 있지만,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해요체’도 ‘하십시오체’와 마찬가지로 격식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앞서 DCT 조사에서 격식적 상황에 ‘해요체’를 사용한 응답이 모든 화행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의문, 요청 화행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하십시오체’, ‘해요체’에 대해서는 인식과 사용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상대높임법 사용 양상을 분석한 기존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⁶⁾

6) 최석재(2007:419-420)에서는 준구어 자료의 분석을 통해 비격식적 상황임에도 격식체가 자유롭게 쓰이고, 격식적 상황에서 비격식체가 함께 쓰이는 현상을 두고,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정복(2001:225)에서는 군대 내 격식의 상황에서 상위자에게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혼용해 사용하는 현상, 하위자에게 ‘해체’와 ‘해라체’를 혼용해 사용하는 현상을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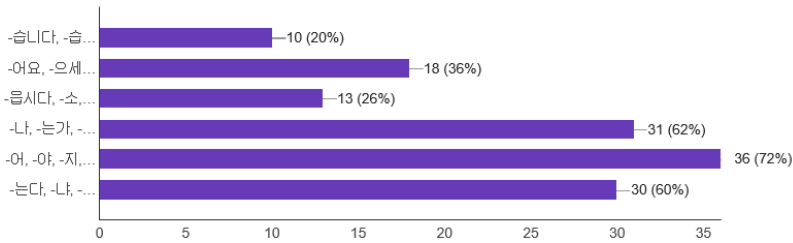


〈그림 2〉 격식적 상황에서 쓰이는 화제

(3) 비격식적 상황에서 쓰이는 화제 변별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 화제로 가장 많은 72%의 응답자가 '-어, -아, -지' 등을 포함하는 '해체'를 꼽았고, 62%가 '-나, -는가' 등을 포함하는 '하계체'를, 60%가 '-는다, -나'를 포함하는 '해라체'를 꼽았다. 격식적 상황에서 쓰이는 화제에 대해서는 '하십시오체', '해요체', '하계체'에 응답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 것에 비해, 비격식체의 화제를 선택하는 문항에서는 '해체', '하계체', '해라체' 외에도 적지 않은 비율로 '하십시오체'(20%), '해요체'(36%), '하오체'(26%)를 선택해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비격식적 상황에서는 격식적 상황에서도 특정 화제가 사용되는 경향이 그다지 강하지 않고 다양한 화제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해라체'의 경우에는 학교 문법에서 격식체로 구분하는 것과 달리 비격식적 상황에서 쓰이는 화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격식적 상황에서 쓰이는 화제라는 응답은 4%에 불과해 모어 화자들이 '해라체'를 비격식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언어 사용 양상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비격식 상황에서 '해라체'가 빈도 높게 사용되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최석재 2007: 419-420, 이정복 2001:225).



〈그림 3〉 비격식적 상황에서 쓰이는 화계

(4) 화계별 구체 문장의 격식성 판단

준구어 말뭉치로부터 각 화계를 대표하는 종결어미 당 문장을 두 개씩 선정하여 격식성을 판단하도록 하였다.⁷⁾ 그 결과, ‘-습니다, -습니까, -으십시오’ 등 ‘하십시오체’ 종결어미는 격식적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해요체’ 중 ‘-으세요, -어요, -네요’의 경우 격식적이라는 응답이 훨씬 높은 비중을 보였지만, ‘-는데요’의 경우 두 개의 문장 중 하나는 격식적이라는 응답이 82%로 우세했지만, 다른 한 문장은 비격식이라는 응답이 58%로 어느 한 쪽이 우세하지는 않았다. ‘-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십시오체’의 경우처럼 ‘해요체’ 어미의 쓰임을 격식적 또는 비격식적 상황 어느 한 쪽으로 더 우세하게 보지 않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해체’의 경우에는 비격식적이라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해라체’의 경우 ‘-는디’, ‘-자’와 같은 일부 종결어미에 대해서는 격식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다른 종결어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오체’, ‘하계체’의 경우에는 ‘-읍시다, -소’의 경우 격식적이라는 응답이 우세했으나, ‘-나, -는가’의 경우에는 비격식적이라는 응답이 더 우세했다.

7) 종결어미 ‘-소’의 경우 말뭉치에서 1회 등장하여 한 문장만을 포함하였다.

〈표 6〉 격식성 판단

연번	종결어미	응답(%)	연번	종결어미	응답(%)
1	습니다	격식 84 비격식 16	23	으십시오	격식 94 비격식 6
2	쵸	격식 76 비격식 24	24	으세요	격식 74 비격식 26
3	어요	격식 78 비격식 22	25	는데요	격식 42 비격식 58
4	으세요	격식 72 비격식 28	26	네요	격식 68 비격식 32
5	어라	격식 12 비격식 88	27	어	격식 6 비격식 94
6	쵸	격식 52 비격식 48	28	냐	격식 6 비격식 94
7	어요	격식 70 비격식 30	29	야	격식 12 비격식 88
8	네요	격식 86 비격식 14	30	지	격식 4 비격식 96
9	어	격식 16 비격식 84	31	어라	격식 18 비격식 82
10	야	격식 26 비격식 74	32	는다	격식 50 비격식 50
11	지	격식 16 비격식 84	33	는데요	격식 82 비격식 18
12	는가	격식 20 비격식 80	34	네	격식 8 비격식 92
13	네	격식 10 비격식 90	35	으십시오	격식 74 비격식 26
14	냐	격식 2 비격식 98	36	는데	격식 8 비격식 92
15	는데	격식 4 비격식 96	37	습니까	격식 68 비격식 32
16	니	격식 10 비격식 90	38	는다	격식 12 비격식 88
17	자	격식 32 비격식 68	39	니	격식 12 비격식 88
18	읍시다	격식 96 비격식 4	40	자	격식 22 비격식 78
19	나	격식 18 비격식 82	41	읍시다	격식 60 비격식 40
20	는가	격식 30 비격식 70	42	소	격식 60 비격식 40
21	습니다	격식 38 비격식 62	43	나	격식 20 비격식 80
22	습니까	격식 70 비격식 30			

(5) 화제 간 높임의 정도 판별

화제 간 높임의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화제별로 고빈도로 사용되는 종결어미군을 제시하여 높임의 정도를 판단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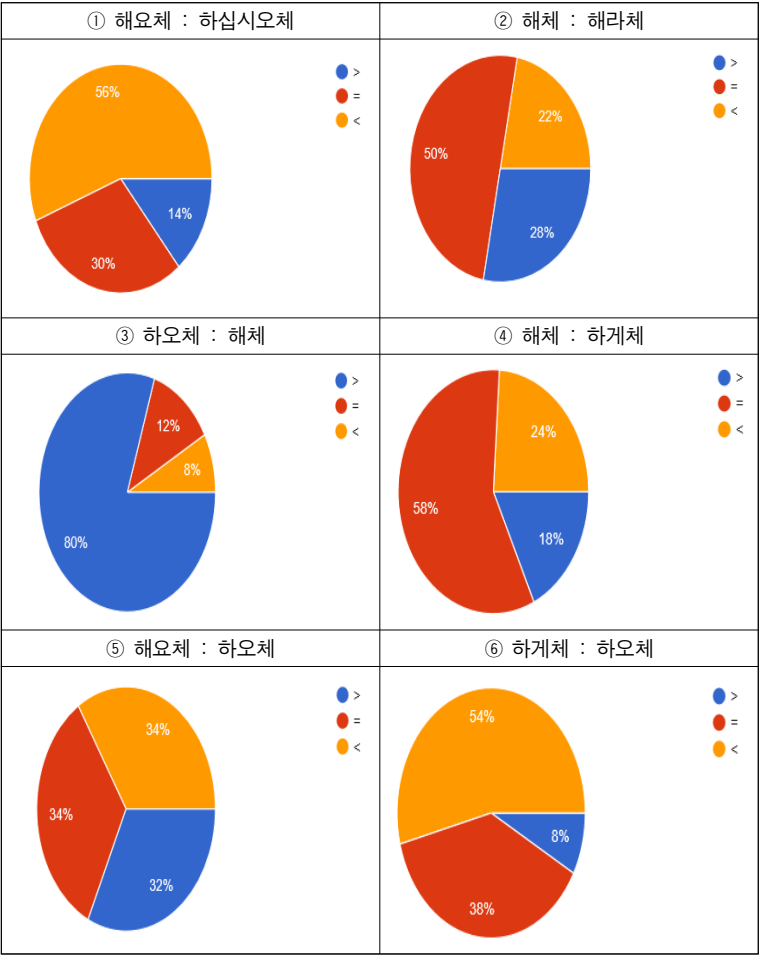
그 결과, 학교 문법에서 같은 높임 화제이지만 격식·비격식의 체계를

달리하는 화계 간 비교에서는 응답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선 비격식체 높임 화계인 ‘해요체’와 격식체의 높임 화계인 ‘하십시오체’ 중에서는 56%가 ‘하십시오체’가 높임의 정도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높임의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30%에 이르렀다. 비격식체의 안 높임 화계인 ‘해체’와 격식체의 안 높임 화계인 ‘해라체’ 간의 비교에서는 두 화계가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으며, ‘해체’가 더 높다는 응답이 28%였다.

현대 국어에서 그 쓰임이 매우 축소된 화계인 ‘하오체’와 ‘하계체’와 비격식체의 높임, 안 높임 화계 간 비교 결과, ‘해요체’와 ‘하오체’ 간 비교의 경우, 두 화계가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34%, ‘하오체’가 높임의 정도가 더 높다는 응답이 34%로 동일하였고, ‘해요체’가 더 높다는 응답이 32%로 그 비중이 크게 차이가 없어 응답자들의 의견의 불일치 정도가 가장 컸다. ‘하오체’와 ‘해체’의 경우에는 ‘하오체’가 더 높다는 응답이 80%에 이르러 ‘하오체’가 높임, ‘해체’가 안 높임의 화계라는 인식이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체’와 ‘하계체’ 간 비교에서는 두 화계가 높임의 정도가 동등하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고, ‘하계체’가 더 높다는 의견이 24%, ‘해체’가 더 높다는 의견이 18%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두 화계의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해체’와 ‘해요체’, ‘해요체’와 ‘해라체’ 간 비교에서처럼 그러한 인식이 매우 분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 국어에서 그 쓰임이 축소되고 있는 ‘하오체’와 ‘하계체’ 두 화계 간 비교에서는 ‘하오체’가 더 높다는 의견이 54%로 가장 많았고,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38%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높임의 화계인 ‘하오체’가 안 높임의 화계인 ‘하계체’보다 높임의 정도가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을 대부분의 응답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 화계는 현대 국어에서 그 쓰임이 사라져가는 화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 기회가 적다는 점에서 응답자들의 화계의 특징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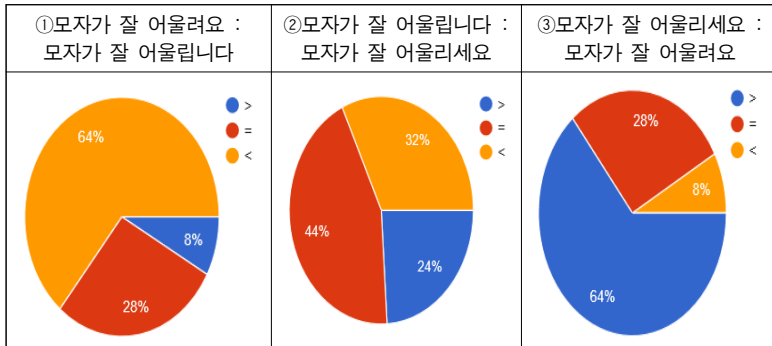


〈그림 4〉 화계 간 높임의 정도 판별

(6) 화계별 구체 문장 간 높임의 정도 판별

ㄱ) 평서문

‘해요체’와 ‘하십시오체’의 문장 비교에서는 평서문의 경우 ①에서 ‘어울립니다’가 ‘어울려요’보다 높임의 정도가 더 높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64%를 차지했고,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하십시오체’가 더 높다는 응답이 56%,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30%를 차지한 5)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②에서 ‘어울립니다’와 ‘어울리세요’의 비교에서 두 문장이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4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어울리세요’가 더 높다는 의견이 32%를 차지했다. 이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가 상대높임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으)시-’가 관여하지 않을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해요체’보다 ‘하십시오체’가 높임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 화계별 구체 문장 간 높임의 정도 판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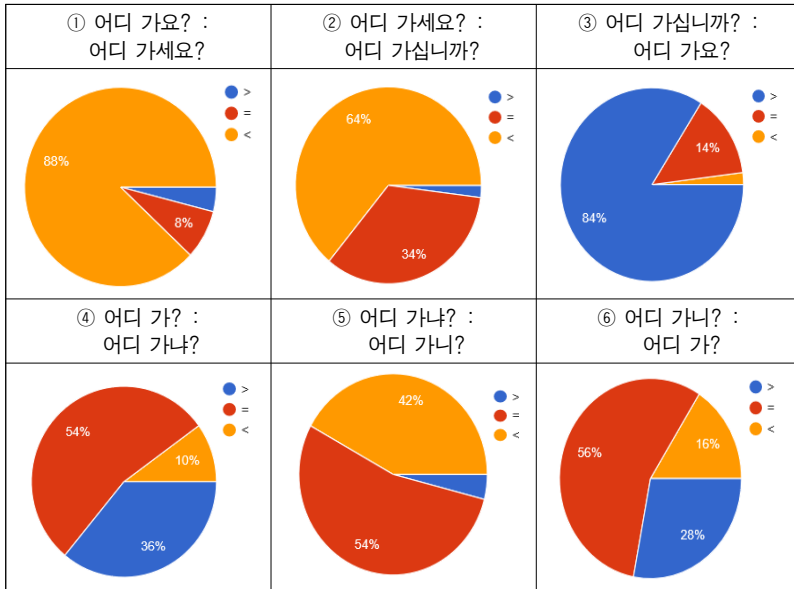
ㄴ) 의문문

의문문의 경우 ‘어디 가십니까?’에 대해 ‘어디 가요?’와 ‘어디 가세요?’의

두 문장을 비교하도록 한 결과, ‘어디 가요?’와의 비교에서는 84%에 이르는 상당수의 응답자가 ‘하십시오체’가 사용된 ‘어디 가십니까?’가 높임의 정도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고, ‘어디 가세요’와의 비교에서 역시 64%의 응답자가 ‘어디 가십니까?’가 더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34%의 응답자는 두 문장 간에 높임의 정도가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평서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십시오체’를 높임의 정도가 더 높은 화계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5)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안 높임의 화계 간 비교에서는 ‘가’와 ‘가냐’의 경우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4%, ‘가’가 더 높다는 응답이 36%에 이르렀다. ‘가’와 ‘가니’의 비교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으나, ‘해라체’인 ‘가니’가 더 높다는 의견이 28%로 ‘해체’인 ‘가’가 더 높다는 의견 16%보다 많아 ‘가냐’와 차이를 보였다. ‘해라체’ 어미인 ‘가냐’와 ‘가니’의 비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54%로 가장 많았고, ‘가니’가 더 높다는 의견이 42%로 그 뒤를 이었다. 높임의 정도가 차이가 없다면 두 화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와 ‘가냐’의 경우에는 높임의 정도 외에 다른 차이가 없다는 응답과 친밀함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각각 40.6%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격식/비격식 상황의 차이라는 응답이 18.8%로 나타났다. ‘가’와 ‘가니’의 경우,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응답자의 54.5%가 그 외에 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친밀함의 정도에 차이가 난다는 응답이 33.3%였다. ‘가냐’와 ‘가니’가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친밀함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많았고, 격식/비격식의 상황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28.6%, 다른 차이 없이 동일하다는 응답이 22.9%로 나타났다. 즉, ‘해체’와 ‘해라체’의 의문형 어미 ‘-어, -니, -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차이를 인식하는 경우는 친밀함이나 격식/비격식의 맥락에서 차이

를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화계별 구체 문장 간 높임의 정도 판별 2

ㄷ) 명령문

명령문의 경우 높임의 화계 간 비교에서 ‘앉으십시오’가 ‘앉아요’보다 더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86%로 대부분의 응답을 차지하였으며, ‘앉으세요’보다 ‘앉으십시오’가 높임의 정도가 더 높다는 응답이 60%, ‘앉으세요’가 더 높다는 응답이 36%로 나타나 ‘하십시오체’가 ‘해요체’보다 높임의 정도를 높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앉으시지요’와⁸⁾ ‘앉으세요, 앉으

8)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에서는 ‘하십시오체’의 명령형 어미 ‘-으십시오’에 대해 “말할 때 ‘-으십시오’를 ‘-으시지요’로 바꿔 쓰기도 한다. 이는 명령은 아무리 정중하게 말하여도 일단 명령이므로 이를 권유나 당부로 바꾸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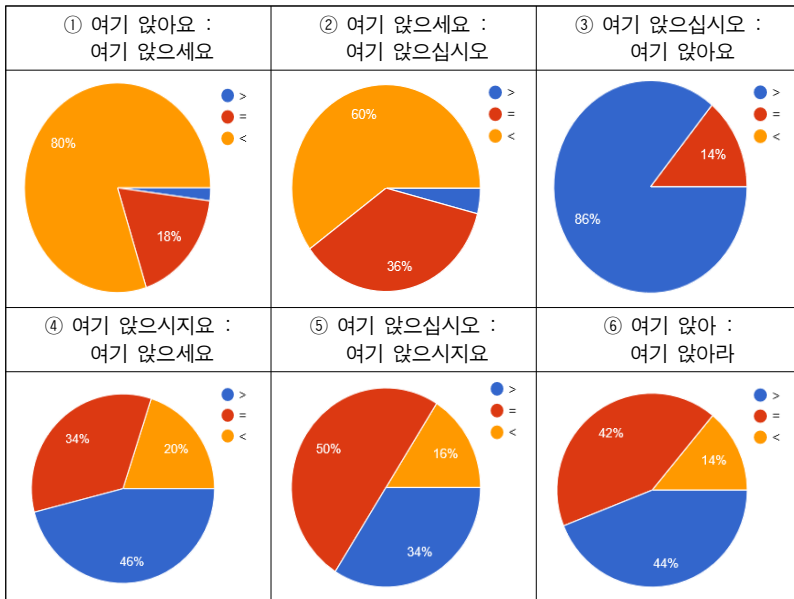
십시오'의 비교에서는 '앉으시지요'가 '앉으세요'보다 더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46%로 가장 많았고,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34%였으며, '앉으십시오'와 '앉으시지요'가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0%를 차지하였고, '앉으십시오'가 더 높다는 응답이 34%로 나타났다.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외 다른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6.3%였으며, 친밀함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25%, 격식/비격식 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25%로 나타났다. 같은 '해요체'의 종결 형식이지만 '-으세요'보다는 '-으시지요'가 높임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하십시오체' 종결어미인 '-으십시오'와 '해요체'에 속하는 '-으시지요'는 일부가 격식/비격식 상황이나 친밀함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 상당수가 높임의 차이 외에 다른 차이 역시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 높임의 화계인 '해체'와 '해라체' 간의 비교 결과, '앉아'가 '앉아라'보다 높임의 정도가 크다는 응답이 44%,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42%로 유사했다. 이는 앞서 의문문에서 상당수 응답자가 '해체'와 '해라체' 간 차이를 인식하지 않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없을 경우, 하위 문항으로 다른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친밀함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46.4%,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28.6%, 격식/비격식적 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2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이 '해체'와 '해라체' 간에 높임의 정도에 차이를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일부는 친밀함의 정도나 격식/비격식적 상황에서 차이를 인식한다는 것을 나

다.”라고 하여 ‘-으시지요’를 ‘-으십시오’와 마찬가지로 명령을 뜻하는 종결어미로 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으시지요’를 명령을 뜻하는 종결어미로 보고 명령문을 구성하여 높임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타낸다. 이는 ‘해체’와 ‘해라체’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사용 양상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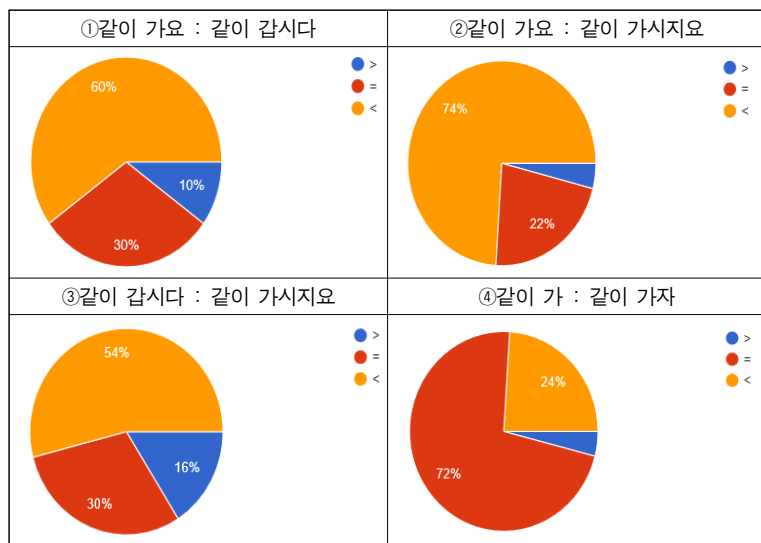
〈그림 7〉 화계별 구체 문장 간 높임의 정도 판별 4

ㄷ) 청유문

청유문의 경우 ‘하오체’의 종결어미 중 현대 국어에서 비교적 널리 사용되는 ‘-읍시다’를 포함하여 비교하였다. 우선, 높임의 화계 간 비교는 ‘가요’와 ‘갑시다’의 비교에서는 ‘갑시다’의 높임의 정도를 더 높다고 판단한 경우가 60%,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0%, ‘가요’가 더 높다는 응답이 10%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하오체’를 ‘해오체’보다 높다고 판단하였다. ‘가요’와 ‘가시지요’의 비교에서는 74%에 달하는 응답자가 ‘가시지요’가 더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동등하다는 응답도 22%에 이르렀다. ‘갑시

다'와 '가시지요'의 비교에서는 '가시지요'가 더 높다는 응답이 54%,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30%였다. 즉, 주체높임의 '-(으)시-'가 사용된 경우 '해요체'의 '-으시지요'가 '-읍시다'보다 높임의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였다.

안 높임의 화계의 경우에는 '해체'의 '가'와 '해라체'의 '가자'를 비교에서 72%에 달하는 상당수 응답자가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24%는 '해라체'인 '가자'가 '가'보다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차이가 없다는 응답자 중 54.8%는 다른 차이 역시 없다고 판단하였고, 42.9%는 친밀함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이로써 상당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해체'와 '해라체'의 청유형 종결어미에 대해서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친밀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화계별 구체 문장 간 높임의 정도 판별 4

(7) 화계별 고빈도 종결어미의 사용 상황 기술

ㄱ) 하계체(-나, -는가, -네, -게, -을세, -던가, -으이)

제시된 ‘하계체’ 종결어미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기술하도록 한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가 ‘하계체’ 종결어미의 사용 상황으로 화청자의 상하관계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2>에서 보듯이 청자가 화자보다 하위자이거나 동등한 경우라는 응답이었으며, 화청자의 관계가 편하거나 친밀한 경우에 사용된다는 응답도 있었다. 장인과 사위, 나이 든 친구 사이와 같이 특정한 화청자 관계에서 사용된다는 응답은 다른 화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1920~30년대 소설, 사극 드라마에서 사용되던 화계라는 응답은 ‘하계체’가 현대에 사용되지 않는 화계로서 현대에는 소설이나 드라마와 같은 장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격식성에 관해서는 같은 화계를 두고 격식 있는 어조라는 응답과, 비격식체라는 응답이 동시에 나타나 한국어 화자들의 인식이 동일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르신 말투, 조선시대 양반의 말투라는 응답에서는 ‘하계체’를 사용하는 화자의 연령이나 신분, 화계의 사용 시대 등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응답은 한국어 화자들이 격식체의 안 높임 화계로서 ‘하계체’의 특성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현대 국어에서 특정 화청자 관계로 그 쓰임이 축소된 현상, 이전 시기에 사용되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 현대 국어에서는 사극 드라마나 소설 등의 특정 장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등 ‘하계체’의 사용 맥락과 범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하계체’ 사용 상황에 대한 응답

유형		내용
화청자 관계	상하 관계	친구·동료·후배, 나보다 어린 사람일 때,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말할 때·편한 관계, 상대방이 동등하거나 낮을 때, 높은 사람 => 낮은 사람, 직장상사-직장후배, 직장 상사·업무 내용, 친구사이, 친구와의 대화, 친구 관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상대방이 동등한 위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물어보는 격식 있는 어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사용, 윗사람부터 아랫사람
	특정 관계	화청자관계(회사 등),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장인어른-사위 대화 시, 혼자 의문, 장인이 사위에게, 회장이 나이 든 고위직원에게, 1920-30년대 소설에서 나이든 친구 사이에
	친밀성	친한 사이에 쓰는 대화에서 사용,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말할 때·편한 관계, 친한 사이에서, 편한 사이
화자의 태도		존경
사용 시대		1920-30년대 소설에서 나이든 친구 사이에, 사극 드라마에서
상황의 격식성		비격식, 격식 있는 어조,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물어보는 격식 있는 어조
사용 장르		1920-30년대 소설에서 나이든 친구 사이에, 서면에서, 드라마에서, 사극 드라마에서, 직장 상사·업무 내용, 대화할 때,
문제		어르신 말투, 조선시대 양반의 말투

ㄴ) 하오체(-읍시다, -소, -오, -습디다, -는구려, -다오, -습디까, -우)

‘하오체’의 사용 상황에 대한 응답에서 화청자 관계와 관련한 응답은 주로 발화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동등한 대상에게 쓰이며, 격식 있는 자리에 사용된다는 것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를 통해 응답자들이 ‘하오체’가 격식체의 높임의 화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 화자들의 인식과 학교 문법 체계는 실제 언어 사용을 분석한 결과 화자와 동등하거나 하위의 청자에게 ‘-으오’가 사용되는 경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며, 앞선 논의들에서도 이 같은 점이 지적되어 왔다.⁹⁾

또한, 응답이 대체로 청자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화자보다 많다는 점에만

집중되어 있어 ‘하오체’가 ‘하계체’와 더불어 화청자의 나이가 모두 들 만큼 들어야 쓸 수 있는 화계라는 점에 대해서는(이익섭·채완, 1999:355, 358)¹⁰⁾ 인식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30년대, 20세기, 개화기, 옛날 말이라는 응답으로부터 현대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을, 2-30년대 드라마나 소설, 사극 드라마, 역사책, 고전 소설, 시험문제에 쓰인다는 응답에서는 ‘하오체’가 일상대화가 아니라 극이나 시험 문제 등의 장르, 특히 문어체에 제한적으로 쓰이는 현상을 한국어 화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난 말투라는 응답의 경우는 현대 국어에서 ‘하오체’가 젊은이들 사이에 해당 화청자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화계를 선택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려는 의도에서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박지순 2015ㄴ:66),¹¹⁾ 이러한 사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9) 이익섭·채완(1999:358)에서도 중세국어, 근세국어, 개화기에는 ‘하오체’가윗사람에게 널리 쓰였으나 현대로 오면서 ‘하오체’ 대신 ‘해요체’가 자리 잡고, ‘하오체’는 친구나 아랫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데 쓰여 그 범위가 좁아졌다고 한 바 있으며(박지순 2015ㄴ:65에서 재인용), 임흥빈 외(1995)에서 역시 ‘하오체’와 ‘하계체’가 상위자에게 쓸 수 없는 형식이기 때문에 ‘하오체’를 예사 높임이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오체’는 ‘하계체’와 함께 특정한 상대에 대하여 정중한 대우를 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윤천택 2004:399에서 재인용).

10) 최석재(2007:408)에서는 화자가 적어도 40대 이상, 청자는 20대 이상이 되어야 ‘하오체’와 ‘하계체’를 사용한다고 보았다.

11) 박지순(2015ㄴ:66)에서 21세기 세종계획의 형태소 분석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일상 대화에서 ‘하오체’ 종결어미 ‘-소’가 사용된 경우는 총6회였는데 모두 20대 대학생들 간의 대화로 ‘하오체’를 전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청자 관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화계를 선택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려는 의도에서 쓰인 것으로 보았다.

〈표 8〉 ‘하오체’ 사용 상황에 대한 응답

유형		내용
화청자 관계	상하관계	선배·상사·동료,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일 때, 상하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동등할 때, 낮은 사람=>높은 사람·혹은 높임(다만, 아주 친밀한 사이여야 함), 나이 많으신 분들과 얘기하는 아이, 상사·일반, 화청자 관계(연세가 많으신 분), 연장자-아이, 상대방이 더 높은 위치, 격식 있는 자리나 높은 분에게 사용된다, 동등한 관계·친밀하지 않은 관계, 나이가 비슷하고 하대하기는 어려운 경우, 밀사로부터 윗사람
	특정 관계	어른들, 남자 어른들 사이, 낮은 성인들끼리, 체면을 차리는 성인들끼리, 노인에게
	친밀성	낮은 사람 => 높은 사람·혹은 높임(다만, 아주 친밀한 사이여야 함), 친하긴 하지만 존대해야 되는 사이, 동등한 관계·친밀하지 않은 관계
화자의 태도		존경하는 사람, 존경
상황의 격식성		격식, 격식 있는 자리나 높은 분에게 사용된다
사용 시대		2·30년대 드라마나 소설, 20세기 한국 시, 고전소설(개화기까지), 옛날 말
사용 장르		2·30년대 드라마나 소설, 이것 또한 사극 드라마에 쓰는 것 같다, 20세기 한국 시, 역사책, 사극 드라마, 고전소설(개화기까지), 시험 문제
문체		옛날 말투, 장난 말투, 사투리같은 존재

ㄷ) 하십시오체(-습니다, -습니까, -으십시오, -는답니다, -으렵니까)

‘하십시오체’의 사용 상황에 대한 응답은 주로 격식성에 대한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격식적이고 공적인 상황,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화청자 관계에서는 화자보다 나이나 직위가 높은 대상에게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화자의 태도는 청자를 존중, 존경하는 태도라는 응답이 있었다. ‘하십시오체’는 앞선 화계들과 달리 사용 시대나 문체, 말투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사용 장르에 대한 언급이 다른 화계들과 차이를 보였다. ‘하십시오체’의 주된 사용

장르는 군대상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밖에도 공식적인 방송, 토론이나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진행자가 사용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하십시오체’가 다른 화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격식적 장면에서의 사용을 들었으며, 그 밖에도 청자가 다수일 때, 방송 매체에서의 사용이 많다는 점, 남성 화자에 의한 발화가 여성 화자에 의한 발화보다 많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박지순 2015:141-142). 본 조사에서는 화청자의 성별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체적인 응답으로 언급되어 한국어 사용자들이 ‘하십시오체’의 사용 양상을 실제로 가깝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하십시오체’ 사용 상황에 대한 응답

유형		내용
화청자 관계	상하관계	윗사람, 선배·상사,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일 때, 손윗사람에게 격식 있게 말할 때, 상대방이 높을 때, 존경하는 사람& 높은 사람, 동등, 상사·일반, 높임말, 상대방이 더 높은 위치
	특정 관계	어른들, 손님에게 대할 때 쓰는 말투, 선생님과의 대화, 직장인
화자의 태도		존중하는 표시로 쓰인다, 존칭어, 존경, 아주 격식적·아주 높임, 존경하는 사람& 높은 사람
상황의 격식성		손윗사람에게 격식 있게 말할 때, 아주 격식적·아주 높임, 격식, 격식, 격식을 갖춰야하는 사이, 격식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된다, 공적인 관계, 격식 상황, 공식적 상황, 공적으로 격식을 차려야 할 경우, 격식적인 자리, 격식적이고 공식적인 상황에서, 아주 격식적·아주 높임
사용 장르		군대 용어, 군대말투, 공식적인 방송(뉴스)에서, 군대, 군인들 사이에서 쓰는 말, 발표, 진행자가

ㄹ) 해라체(-는다, -냐, -니, -어라, -자, -는구나, -더라)

‘해라체’의 사용 상황에 대한 응답은 주로 화청자 관계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화자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나 친구에게 쓰는 화계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안 높임의 화계로서 ‘해라체’의 화계 성격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된다는 응답도 상당수 나타났으며, 격식성과 관련해서는 비격식적인 자리, 격식이 없는 사이에서 사용한다는 응답이 상당수 있어 학교문법에서 ‘해라체’가 격식체의 화계로 제시되는 것과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높임법 사용 양상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해라체’가 비격식적 장면에서 활발히 사용되며 심지어 격식적 장면에서보다 비격식적 장면에서 더 높은 비율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일상생활, 대화 상황 등 ‘해라체’가 쓰이는 장르에 대한 언급은 ‘해체’, ‘해요체’와 더불어 일상적인 화계로서 면대면 상황에 가장 많이 쓰이는 ‘해라체’의 사용 양상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0〉 ‘해라체’ 사용 상황에 대한 응답

유형		내용
화정자 관계	상하관계	어른들, 어르신 분들께서 아이들한테 자주 쓰는 말, 친구와 친구 사이, 친구·동료·후배, 나보다 어린 사람일 때, 동년배나 손아랫 사람에게 말할 때, 상대방과 동등하거나 낮을 때, 낮춤 혹은 평대할 수 있는 상황, 친구, 친구와의 대화, 친구, 일반, 친하게 지내는 친구 관계, 친구 사이, 상대방이 동등한·낮은 위치, 나보다 밑의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 비격식인 자리에서 친한 친구랑 쓰는 어조, 자신보다 아랫사람에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에게 말할 때, 동등한 관계,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사용, 친구, 편한데 내가 더 윗사람일 때, 친구 사이에서 쓰는 말, 동등한 관계, 친구 대화, 후배에게,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특정 관계	부모님과 아이, 부모님-아이
	친밀성	친한 사람, 편한 관계, 친하게 지내는 친구 관계, 비격식인 자리에서 친한 친구랑 쓰는 어조, 친밀한 사이, 동등한 관계 친밀한 관계, 편한데 내가 더 윗사람일 때, 아주 친밀하고 격식이 없는 사이에서, 친밀한 관계

화자의 태도	존경
상황의 격식성	비격식, 비격식인 자리에서 친한 친구랑 쓰는 어조, 아주 친밀하고 격식이 없는 사이에서
사용 장르	일상생활, 대화 상황

ㄱ) 해체(-어, -야, -지, -네, -는데, -을게, -을까, -거든, -고, -을래)
 ‘해체’ 역시 ‘해라체’와 마찬가지로 화청자 관계에 대한 언급이 많았는데, 주로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친한 사람, 편한 관계 등 화청자가 친밀한 관계일 때 사용된다는 응답이 상당수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인 화청자 관계를 ‘가족관계, 사적인 관계, 사무적인 관계’ 등 사적이나 공적인 관계를 모두 언급한 것으로 보아 ‘해체’의 사용 범위를 매우 폭넓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체’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에서 가장 사용 비율이 높은 화계로 나타난 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격식성과 관련한 응답은 일관되게 격식을 차리지 않는 상황에 쓰인다는 것으로 나타나 ‘해체’가 비격식적 장면에서 주로 사용된 기존 연구와 유사하다. 이 같은 ‘해체’의 사용 환경에 대한 인식은 ‘해라체’와 매우 유사하다. 현대 국어에서 ‘해체’와 ‘해라체’가 과연 격식성이나 높임의 정도로 구별되는 화제인가에 대한 의문과 ‘해체’와 ‘해라체’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인식은 여러 연구에서 있어 왔다(이익섭·임홍빈 1983, 허웅 1999: 285, 이익섭·채완 1999, 고성환 2003:21, 박석준 2005, 박지순 2014:87, 박지순 2015ㄱ:135). 기존 연구에서 실시된 언어 사용 분석 결과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인식과 직관으로는 ‘해체’와 ‘해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표 11〉 ‘해체’ 사용 상황에 대한 응답

유형		내용
화청자 관계	상하관계	친구, 동배에게, 동료·후배, 동년배나 손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나보다 어린 사람일 때, 상대방이 동등하거나 낮을 때, 낮춤, 혹은 평대할 수 있는 상황(4보다 좀 더 친밀한 사이), 친구와의 대화, 친구 관계, 동등한 관계(덜 친밀하다), 상대방이 동등한, 낮은 위치, 동갑이나 연하에게 쓰는 말투, 친밀한 관계·동등한 관계, 친구 같은 사이
	특정 관계	친구 혹은 가족관계, 일상적인 사적인 관계에서, 사무적인 관계에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자주 쓰는 말
	친밀성	친한 사람, 편한 관계, 낮춤, 혹은 평대할 수 있는 상황(4보다 좀 더 친밀한 사이), 친밀한 관계, 동등한 관계(덜 친밀하다), 친한 사이에 쓰는 대화에서 사용, 비격식 자리에서 친한 친구랑 쓰는 어조, 친밀한 사이, 친밀한 관계·동등한 관계, 편한 사이일 때 쓰는 말, 격식을 차리지 않는 친한 사이
상황의 격식성		격식을 차리지 않는 친한 사이, 비격식, 비격식 자리에서 친한 친구랑 쓰는 어조
사용 장르		일상생활, 대화장르, 대화상황, 아주 일반적인 한국어 화제

ㄴ) 해요체(-어요, -으세요, -죠, -는데요, -네요, -을게요, -거든요)

‘해요체’의 사용 상황에 대해서는 화청자 관계 중 화자보다 윗사람에게 쓰인다는 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친밀성과 격식성의 경우에는 친밀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 격식적 상황과 비격식적 상황이 모두 언급되었다. 즉, ‘조금 편안한 자리, 동년배인데 편한 관계가 아닐 때, 격식을 차리지만 편한 상대에게, 조금 덜 격식적인 상황,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사이’ 등 일관된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은 사용 장르에 대한 응답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일상적인 사적인 관계에서’, ‘회의나 토론 등 격식적이고 공식적인 상황에서’와 같이 성격이 다른 두 장르가 모두 언급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해요체’가 비격식의 안 높임 화체이지만 격식적인 장면에서의 사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한국어

화자들의 인식에서도 ‘해요체’가 격식/비격식의 상황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해요체’ 사용 상황에 대한 응답

유형		내용
화청자 관계	상하관계	어른에게, 아이들이 어른께 하는 말, 친한 윗사람, 동료·선배·고객/손님한테,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일 때, 손윗사람인데 편한 관계에게, 동년배인데 편한 관계가 아닐 때, 상대방이 높을 때, 높임(조금 편안한 자리 내지 조금 덜 격식적인 상황), 선배, 높은 사람, 선생님과의 대화, 높은 사람들, 직장 상사,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배, 선배-후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학생이 선생님께), 상대방이 더 높은 위치, 격식적인 자리나 윗사람에게 쓰는 어조, 대화·친밀·손윗사람에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존대를 쓰는 사이, 밑사람부터 윗사람(친밀한 관계), 윗사람에게
	특정 관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학생이 선생님께), 직장 동료 사이에 쓰는 말투, 교수님과 대화, 낯선 관계에서
	친밀성	높임(조금 편안한 자리 내지 조금 덜 격식적인 상황), 동년배인데 편한 관계가 아닐 때, 친밀, 손윗사람에게, 손윗사람인데 편한 관계에게, 친밀한 관계, 격식을 차리지만 편한 상대에게 사용, 밑사람부터 윗사람(친밀한 관계), 친한 윗사람
화자의 태도		존칭, 존댓말, 복종, 높임말, 높인 말, 존경
상황의 격식성		높임(조금 편안한 자리 내지 조금 덜 격식적인 상황), 격식, 격식을 갖춰야하는 사이, 격식적인 자리나 윗사람에게 쓰는 어조, 격식을 차리지만 편한 상대에게 사용, 회의나 토론 등 격식적이고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 장르		일반인에게, 대화, 일상적인 사적인 관계에서, 회의나 토론 등 격식적이고 공식적인 상황에서

IV. 결론

본 연구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상대높임법 사용 양상과 인식을 DCT, 설문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학교문법 체계와 한국어 화자의 인식, 사용 양상

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문법 체계에서는 상대높임법 등급을 6개로 제시하는 반면, 실제 사용되는 등급은 4개로, 화자들은 2~7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문법에서는 상대높임법이 종결어미로 실현된다고 설명하고, 상세 체계에서는 ‘-(으)시-’의 관여를 인정하여 모순을 보이고 있는데, 화자들은 ‘-(으)시-’에 의해 상대높임법의 등분이 세분화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임의 정도에 대한 인식은 문법 체계에서 ‘하십시오체’가 ‘해요체’보다 더 높은 등급이라고 제시되고 있으며, 화자들도 동일한 인식을 보였으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하십시오체’와 ‘해요체’ 간에 높임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아 차이가 있었다. ‘해체’와 ‘해라체’의 경우, 체계상으로는 ‘해체’가 두루높임, ‘해라체’가 아주낮춤의 화계로 ‘해라체’가 ‘해체’보다 낮은 화계이지만, 사용 양상은 두 화계 간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자들 역시 차이를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두 화계는 높임의 차이보다는 친밀함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하오체’의 경우에는 체계상 높임의 화계에 속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 ‘하계체’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상대나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안 높임의 화계로 사용된다. 그러나 한국어 화자들은 학교문법의 체계와 마찬가지로 높임의 화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식성과 관련해서는 체계에서는 ‘해요체’는 비격식체, ‘해라체’는 격식체로 보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해요체’는 격식, 비격식의 모든 상황에서 사용되지만 일부 종결어미는 격식적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자들의 인식 역시 유사했다. ‘해라체’의 경우 역시 체계에서는 격식체로 보지만, 사용 양상과 화자들의 인식 속에서는 비격식체로의 쓰임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체계와 괴리를 보였다.

〈표 13〉 학교문법 체계, 화자 인식, 사용 양상 비교

		학교문법 체계	사용 양상	화자 인식
등급 개수		6개	4개	2~7개
‘-(으)시-’의 등급 세분화		상대높임법 설명과 제시 체계 간 모순	-	등급세분화
높임의 정도	하십시오체-해요체	하십시오체>해요체	하십시오체=해요체	하십시오체>해요체
	해체-해라체	해체>해라체	해체=해라체	해체=해라체
	하오체	예사높임	안 높임	높임
격식성	해요체	비격식체	격식/비격식체 (일부화행 격식체 우세)	격식/비격식체(격식체 우세)
	해라체	격식체	격식/비격식체(비격식체 우세)	격식/비격식체(비격식체 우세)

문법 교육에서 다루는 언어 지식은 학습자의 언어생활을 규제하고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문법 교육의 내용이 언어의 사용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학습자의 언어생활에 혼란을 주게 된다. 상대높임법은 사회문화적인 요소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 사회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개화기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와 더불어 그 사용 양상이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상대높임법 체계가 현대 한국어 화자의 언어 사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대 국어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정밀하고 폭넓은 양상 조사를 통해 상대높임법 체계를 재조명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구성이 제한적이고, 설문과 DCT를 사용한 조사라는 점에서 조사 결과가 그대로 현대 국어 화자의 상대높임법 사용 양상과 인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대 국어 사용자의 상대높임법 사용 양상과 인식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대높임법 체계와의 괴리가 실제로 존재함을 엿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성환, 『국어명령문에 대한 연구』, 역락, 2003.
- 구본관, 「문법 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경어법 교육을 중심으로-」, 『선청어문』36, 서울대국어교육과, 2008, pp.749-779.
- 국립국어원, 『한국어 문법2』,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_____, 『표준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2010.
- 김병건, 「학교문법에서의 상대높임법의 위계와 20, 30대 상대높임법 인식의 비교」,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 pp.40-59.
- 남기섭·고영근, 『표준 국어 문법론』, 탐출판사, 1985/2011.
- 박석준, 「초급 한국어 교재의 청자 높임법」, 『한말연구』17, 한말연구학회, 2005, pp.85-107.
- 박지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상대높임법 체계의 제 문제」, 『문법교육』 20, 한국문법교육학회, 2014, pp.77-108.
- _____, 『현대국어 상대높임법의 맥락분석적 연구-일상적 준국어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ㄱ.
- _____,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하오체, 하계체 교육 내용 연구-구어 말뭉치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중언어학』 59, 이중언어학회, 2015ㄴ, pp.53-81.
- 손호민, Power and Solidarity in Korean Language, Korean Linguistics 3, 1983.
- 유송영, 「국어 청자 대우법에서의 힘(power)과 유대(solidarity) (I)」, 『국어학』 24, 국어학회, 1994, pp.291-317.
- _____, 『국어 청자대우 어미의 교체사용(switching)과 대우법 체계-힘(power)과 유대(solidarity)의 정도성에 의한 담화분석적 접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윤천택, 「학교 문법의 상대 높임법 기술 내용 재고」, 『청람어문교육』 29, 청람어문교육학회, 2004, pp.385-406.
- 이삼형 외, 『중학교 국어 5』, 두산동아, 2014.
- 이익섭·임흥빈, 『국어문법론』, 학연사, 1983.
- 이익섭·채완,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1999.
- 이정복, 『국어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 태학사, 2001.
- 이창덕, 「현대 국어 비인칭 존대 현상과 그 교육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한국초등국

- 어교육』53, 2013, pp.275-299.
- 임지룡, 「청자대우법의 화계와 해석」, 『언어과학연구』 72, 언어과학회, 2015ㄱ, pp.347-376.
- _____, 「학교문법 상대 높임법의 새로운 이해」, 『한민족어문학』 69, 한민족어문학회, 2015ㄴ, pp.359-398.
- 임홍빈·장소원,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5.
- 전경원 외, 『중학교 국어 5』, 두산동아, 2014.
- 최석재, 「현대국어 대우법의 화계 구분에 대한 고찰-드라마 대본에 나타난 서울 지역 구어 환경을 대상으로-」,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2007, pp.397-432.
- 허웅,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 문화사, 1999.

Abstract

Study on the Recognition of Honorification
among Korean Native Speakers
-focused on Koreans in their 20s, 30s-

Park, Ji-soo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Korean honorificaton in school grammar, the general use of honorification among Korean native speakers, and the recognition of honorification among Korean native speakers by using DCT and survey. The result shows that there are some discordance between these three. For instance, school grammar regard Haera style as formal style, whereas Korean native speaker consider it as informal alike in general use. As for class of honorification, degree of honorification of styles discordance appeared.

Key Word : Honorification, Recognition of Honorification, Recognition among Korean Native Speaker, Language Use

박지순

소속 :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전자우편 : slovabog@yonsei.ac.kr

이 논문은 2016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8월 5일 게재 확정됨.